

AI 방역 성패 초동 대처에 달렸다

겨울철 불청객이 또 찾아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다. 이미 야생 철새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AI 항원이 잇따라 검출되면서 방역 당국은 물론 양계농가가 크게 긴장하고 있다. 지난달 말 용인 청미천과 파주 문산천에서 바이러스가 확인된 데 이어 이달 초 화성 시화호까지 도내 곳곳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예년보다 발생 속도가 훨씬 빠르다. 다행히 이들 AI 바이러스는 모두 저병원성으로 확인됐지만 그동안 AI로 상상 못 할 피해를 본 도내 양계농가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며 초긴장 상태로 겨울을 맞고 있다.

AI는 이제 해마다 발생하는 겨울철 재해다. 그럼에도 AI로 인한 피해가 너무 커서 발생과 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상존한다. 특히 지난 2016년 전국을 휩쓴 AI로 3천800만 마리의 닭과 오리를 살처분하는 악몽을 겪었다. 그래서인지 방역 당국은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이달부터 2019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AI 차단방역에 나선 상태다. AI 항원이 검출된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가금농가 이동을 통제하며 소독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 역시 지난 10월부터 최근 3년 동안 AI가 2회 이상 발생한 평택, 포천 등 8개 시군에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하고, 중점관리 대상 66개 농가에 통제초소를 설치한 상태다.

철새가 옮기는 탓에 완벽한 AI 예방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선제방역이 가장 효과적이란 것은 이미 검증됐다.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을 앞

—

AI 발생 시 초기 대처 중요 빈틈없는 차단 방역이 피해 규모 최대한 줄일 수 있어

두고 대대적인 차단 방역에 나서 고병원성 AI 발생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크게 줄인 경향이 있다. 올해도 선제적으로 방역에 임한다면 AI를 못 막을 이유가 없다.

겨울 철새들이 계속 날아오고 있는 시기이니 언제 어디서 AI가 발생할지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AI 발생 시 무엇보다도 초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하다. 대부분이 초동 대응에 실패해 AI로 큰 피해를 본다. 빈틈없는 초동 방역만이 피해 규모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 외부인의 출입을 가능하면 막고, 축사 안팎을 철저히 소독해야 한다. 방역수칙 준수는 조금 힘들더라도 예방의 첫 단계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완전한 방역 대책을 세웠더라도 양계농가가 이를 실천하지 않으면 효과를 거둘 수가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 협조도 필요하다. 불편해도 축산농가 보호에 우리 모두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차단 방역에 협력해야 한다.

▶ 경인일보 [2018. 12. 13]

